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 12.

## 폴란드 선교 이야기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의 행복! (폴란드에서의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인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저희 수도회를 위해 영적으로 물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후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종신서원 후 동·중앙 유럽 관구에 파견되어 지금은 폴란드에 2년 반 넘게 살고 있는 박정주 레지나 수녀입니다. 사실 3년도 안된 초보 선교사이지만, 그동안 제가 이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참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폴란드로 선교를 간다고 한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첫 대답은... “거긴 왜가?” 였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었지요. 천년이 넘는 가톨릭 역사를 자랑하는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에 제가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배우러 가자!”

제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관구집에 도착한지, 3일 후에 한 수녀님이 바로 옆의 초등학교에서 저희 수도회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함께 가서 저에 대해 좀 나누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는 모든 학교에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그 때, 저는 영어로 저와 저희 수도회 선교성소에 대해 나누었지요. 이렇게 시작한 발표는 제가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한 달에 거의 한 두 번씩 초등학교와(이곳은 초등학교가 8학년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리나 피정, 젊은이들의 신앙 공동체, FMM 영적가족, 본당에서의 ‘선교의 날’ 미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폴란드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처음엔 그냥 준비해서 쓴 것을 읽는 것도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면, 듣는 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대안을 한 가지 생각해 내었습니다. 우선은 프리젠테이션(발표) 자료 화면을 아주 정성껏 준비하고, 마치





연극 시나리오를 쓰듯이 긴 대본을 써서 다른 수녀님 한명과 연습 후, 함께 연극을 하듯이 하는 발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연습하면서 폴란드어를 공부했구요. 주제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소개+한국 교회의 역사+한국과 폴란드 교회의 차이점+우리 수도회 소개+제 수도 성소, 선교 성소이야기 등, 발표 대상자와 주제에 따라 매번 다르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감한 경우는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을 사용할 수 없는 미사 중 강론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에는 ‘미션 선데이(Mission Sunday)’라는 기간에 미사 중 선교사를 초대해서 강론 대신 나눔을 듣고 선교지를 위해 모금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27년 동안 선교하시고 계신 ‘마리아 파쿠와’ 수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침 수녀님께서서는 1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폴란드에 머물고 계셨거든요.

제가 수녀님과 처음으로 어린이 미사 중 제대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대화를 나누었던 날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대가 워낙 커서 대답하려는 아이들에게 뛰어다니며 마이크를 건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실에 앉았을 때, 저의 어릴 적 스페인 선교사 신부님의 강론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늘 마이크 선을 최대한 길게 하시고, 성단 안 아이들 곁을 걸어 다니시며 질문도 하시고 강론하셨는데, 열정 가득 하셨던 선교사 신부님을 바라보던 그 꼬마가 지금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그분처럼 미사 중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벅찬 일이었던지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이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이곳 신자들의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소개한다면 몇 명이나 올까요? 저를 초대해서 한국에 대해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었던 이분들의 다른 문화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기만 했습니다. 마치도 하느님께서서는 저를 한국 ‘홍보 대사’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저는 제 모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선교 대회’라는 이름으로 400명 이상의 아이들과 200명 정도의 어른들이 함께 모인 큰 모임에서 한국의 아이들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각 본당과 단체에서 신부님, 수녀님, 종교 교사와 함께 온 아이들이 단체별로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해외 선교지의 전통 의상을 만들어 입고, 선교를 위한 꿈을 그린 큰

연을 만들어 함께 봉헌하며, 선교에 관련된 노래를 배우고 선교사의 나눔을 들으며 함께 미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첫 영성체는 온 친척들이 다 모여 파티를 할 만큼, 굉장한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큰 선물들과 함께 돈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때도 자신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가난한 선교지를 위해 봉헌한답니다. 그리고 성탄 8부 이후,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와 요셉 등의 분장을 하고 각 집을 방문하면서 함께 성탄 성가를 부르는데요, 이때 모금한 돈은 전액 가난한 선교지를 위해 봉헌한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보통의 희생정신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 되요. 이렇게 폴란드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더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몸으로 배운답니다.

지난 1년, 제가 마리아 파쿠와 수녀님과 함께 ‘한국’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뜻 깊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외국인 선교사로서 제가 볼 수 없었던 한국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야 어릴 적부터 늘 보던 모습이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여 비판하곤 했는데, 선교사의 눈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주로 폴란드 신자 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말로 수녀님의 나눔을 들으신 이 곳 신자 분들은 수녀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시며,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선교사의 또 다른 역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문화가 지닌, 아름다움과 좋음을 나누는 몫!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 서로가 가진 좋은 면들을 함께 나누며 더 풍요로워지라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선교사를 파견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본당 안에 있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영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수가 만 명이 넘는 큰 본당이기에 본당에도 도움을 드리며 4명의 폴란드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원로 선교사 신부님께 선교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했 말씀하셨던 신부님의 말씀처럼 저는 지금 아이들과 수녀님들, 만나는 신자들을 사랑하기에나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행조차도 싫어하는 저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10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스리랑카와 인도를 거쳐 지금은 폴란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었음을 선교사로서 살면 살수록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제가 선교사로서 바쳐드리는 가난한 선교사의 동전 두 닢을 모두 바칠 수 있도록 깨어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대림시기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박정주 레지나 수녀.fmm.

## 인사 후원회 담당자

### “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

2019년 새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다짐과 설렘으로 기다렸는데, 어느새 마지막 12월 달력을 마주하니 시간의 빠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리봉 수녀원에 푸르던 은행잎은 한순간 노랗게 물든 후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던 옷들을 벗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정 레지나 수녀님으로부터 후원회 회원님들과 어떻게 소식을 나누는지 인계 받아 매 월 소식지와 축일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 금 베로니카 수녀입니다. 때론 오던 소식지가 오지 않거나 후원금을 납부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과 함께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도회는 재단법인 성프란치스코 수녀회를 설립하여 여성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이주민 지원센터, 새터민 쉼터 및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녀님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영광, 태백, 화령에서 그 지역의 필요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되었고, 저희 수도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폐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구와 수도회의 요청에 따라 본당, 병원원목, 양성동반(영적상담 등), 무용동작 심리상담, 그리스도교 일치와 종교간 대화, 청소년 쉼터, 급식소, 야간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나환우 돌봄 등을 통해서 우리 수도회의 창립정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과 현존을 통해 응답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국제수도회로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카라과, 대만, 모로코, 벨기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에디오피아, 요르단, 이탈리아 등에서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된 곳의 상황에 따라 폭탄과 테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과 외부와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오지에서 의료혜택의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 종교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자체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곳, 쓰레기를 주으며 생활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간단한 생활을 견디는 등 아주 다양한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내는 수녀님들의 소식은 이미 나눔지를 통해서 읽어 보시기도 하였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좀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전문직 공부(간호, 교사 등)를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저희에게 봉헌해 주시는 후원금은 위에서 언급한 저희 수도회의 수녀님들이 활동하는 사도직의 대상자와 수녀님들의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서 사도직 상황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및 생활지원, 이주민들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겪는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문제 등을 법률, 의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기위해 어린아이들을 어디에 맡기고 가야 하는 가정에는 어린아이들 돌봄 지원도 이른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신서원식 때 수녀회 총본부의 책임자인 총장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 받은 이들,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보도록 파견을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희는 수도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런 저희의 봉헌에다 후원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여러분들을 간접적인 봉헌에 동참하게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도직의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희생을 통한 나눔으로 때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둠을 뚫고 새롭게 빛을 향해 나아갈 희망의 길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좋은 지향들이 모여져 때론 어둡고 회색빛 세상에 작은 불빛이 반딧불처럼 빛을 내어 온 세상 모든 이를 하느님께로 향해 함께 손잡고 이끌어 주어 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월 첫 주일 9시 미사는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감사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사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미사도 드리고 하느님 앞에 좀 더 깊게 머무르시고 싶으신 분은 피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도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과 봉사활동도 같이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살면서 힘든 얘기들, 기도가 필요한 상황,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사람인(人)은 사람이 서로 등을 마주하여 기대어 서로 지탱해 주는 모양입니다. 수도원 생활의 경력이 많이 쌓여도 늘 어려운 것은 나와 같을 수 없는 타인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감사한 것은 나 아닌 타인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코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많은 행위들의 시작과 마침은 선이신 하느님 이십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깊어지면서 흘러넘치는 감사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합니다.

2020년 새 달력을 열어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봅니다.

첫째, 미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둘째,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잠깐 멈추어 지향을 두고 기도하고 행동한다.

우리의 작은 미소가 잠깐의 기도가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작은 나눔이 되고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 금미경 베로니카 수녀.fmm.

## 함께 기도해요

후원자 박노창님께서서 암으로 투병중에 계십니다.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도록 치유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1월1일 ~ 11월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 고대완 고월순 고지영  
고유연고재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유희 구유평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미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윤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재식 김정매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진미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김철형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옥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인준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봉근 노석심 노유리 노정애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명숙 문성식 민정웅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길  
박성준 도미니꼬 박수경 박수인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서(박규성)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희순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태식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명순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 오정자 오지연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선주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육동배 윤경숙(제일)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애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관훈 이광희 이귀순  
이근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지  
이민희 이상문 이선경젼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란 이영자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정란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이희랑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수남 임승옥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장세옥 장영표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득근 정명국  
정미영 정미희 정복순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일배  
정재영 정진명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명숙 조석금 조옥희 조정권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지정희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영숙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춘화 최향미 최혜정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